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Done from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Matthew 1:18-25)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 소녀, 마리아의 눈높이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살펴 보았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마음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바뀌는지,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어떻게 ‘떨림’이 ‘설렘’이 변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Hope you’ve been well in the grace of the Lord this past week. On this second Sunday of the Advent, we light up a candle symbolizing the ‘Peace’ of the Lord who came as the king of peace. Last Sunday we examined the birth of baby Jesus from the view of a young girl Mary. We thought about how the heart of ‘fear’ changes to the faith of ‘waiting’ and how, in our hearts too, ‘trembling’ can change to ‘anticipation’.

2 천년 전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로 묵상해 본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관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 보십시오. 사실 복음서는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만약 요셉이 평소 자기 속마음을 일기로 적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We meditated on the story, not as that of Mary 2,000 years ago but as our own here and now. Today let us read the coming of the Lord once again deeply from Joseph’s perspective. In fact the gospel books do not leave much record on Joseph, Mary’s fiancée. Preparing for the message, I attempted to enter the inner world of Joseph appearing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Luke. Had Joseph written a diary sharing his inside thoughts, it might have gone like this.

--00 년 몇 월 몇 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일까?’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내 귓가에는 금속성 울림만 가득했다. 잠시 버티어 보려고 했지만, 맥없이 풀린 두 다리는 그 육중한 소식을 이겨내지 못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단 한 가지 질문만 맴돌기 시작했다.

xx/xx/00

‘How could this terrible thing happen to me?’

Hearing the news, my ears were full of metallic echoes as if I was beaten down by hammer. I tried to withstand but my two weakened legs could not bear that heavy blow of news.

Despite the noise that filled the entire public square, only one question started swirling around.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약혼녀의 난데없는 임신, 청천벽력 같은 이 사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마리아를 돌팔매 앞에 세울 수도 없고, 인적이 끊긴 광야에 나가 한 평생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 애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입니까? 도대체 이 퍼즐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있기는 한 건가요? 그렇다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지 좀 알려 주세요.

‘What should I do now?’

How should I handle this situation that is like thunder and lightening from the sky, a totally unexpected pregnancy of a young fiancée? I cannot let Mary face being stoned, nor can I go out to the wilderness to live for a lifetime shunned away from people... God, why do you give me such a harsh trial? Is it too much to ask for an ordinary marriage just like others, and having children to make a happy home? Is there an answer to solve this puzzle? If so, have mercy on me and please tell me what to do.

요셉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더 잘 알려면, 고대근동의 결혼 풍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12-13세의 어린 소녀와 18-24세의 청년이 약혼을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은 이미 법적인 혼인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약혼하고 사랑하다가 결혼식 날 긴가 민가 해서 도망가면, 결혼한 게 아니지요. 결정 장애 증세를 겪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근동의 결혼은 이해 불가능입니다. 약혼 기간 중 한 방을 쓰지 않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약혼 중에 남편이 죽으면 약혼녀는 신방도 못 꾸려보고 청상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약혼 후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 오지요. 이 때가 바로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혼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약혼 단계, 즉 자기 부모의 집에 있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Joseph was in, we have to look at the marriage customs of the ancient near-east. In those days, a young girl of 12-13 years old and a young man of 18-24 years old got engaged. According to the Jewish law, engagement took the same effect as the legal marriage. Now days after being engaged and being in love, if one later becomes unsure of marriage and runs away on wedding day, one is not marri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people with their fear of commitment,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ancient near-east customs. Although they did not live together during engagement period, the label of husband and wife was used. If husband died during engagement, the engaged girl became a widow without ever being consummated in marriage. In most cases, the husband brought his wife home after an engagement period lasting about a year. This was when they, what we call today, ‘got married’. The problem was Mary got pregnant during her engagement period while living in her parents’ house.

주님의 탄생에 대해 마태는 누가와 전혀 다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주님의 족보와 구약 예언의 성취에 관심을 갖습니다.

On the birth of the Lord, Matthew uses a completely different narrative method from that of Luke. The gospel of Matthew, with the intended audience being Jewish people, shows interest in the genealogy of the Lord and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1)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atthew 1:1)

이 말씀 바로 뒤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 대,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까지 14 대의 족보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짧은 한 절 마태복음 1:16 에 대한 자세한 각주입니다.

Right after this, he lists the details of the 14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the 14 generations from David to captives to Babylon, and then another 14 generations to Jesus. Today's scripture we read is in fact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short verse, Matthew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태복음 1:16)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Christ. (Matthew 1:16)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요셉의 관점에 푼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리아의 눈높이로 바라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건을 지난 주에는 마리아, 이번 주에는 요셉이 되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The gospel of Matthew describes the last part of genealogy of Jesus from Joseph's viewpoint, whereas the gospel of Luke looked at it from Mary's eye level. That is why you and I enter the same event in the Word as Mary last week, and Joseph this week.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v.18)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v. 18)

마태복음 1:16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에 새로운 ‘**사실**’이 보태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심상치 않는 주장입니다. “같이 살기 전에”는 동침하기 전에, 즉 아직 남편 집에 가지 않은 상황을 말하지요. 누가 복음은 마리아가 임신 했을 때의 상황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라고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번졌던 악의에 찬 소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기도 합니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의 내용을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전해 줍니다. 마리아는 한 로마 군인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 사실이 발각돼 파혼 당했다. 이처럼 예전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To Matthew 1:16 that states, ‘Jesus was born from Joseph and Mary’, a new ‘**fact**’ was added. It is an extraordinary claim that Mary’s pregnancy is not by man but by God, the Holy Spirit. “Before they came together” refers to a situation where they haven’t slept together. In other words, she has not gone to her husband’s home. A more amazing fact is the confession that Mary’s pregnancy is from God, the Holy Spirit. This is a direct refutation on a rumor filled with evil intention that was spreading during the times of the first church. Father Origenes tells us the contents of the rumor floating around. Mary was pregnant with a Roman soldier’s baby and when that was discovered, the marriage pledge was broken. Also in those days, there seemed to have been many who doubted the birth from a virgin.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단지 요셉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대 교회의 신앙고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바로 그 예언이 분명히 성취됐다고 확인합니다.

The author of the Gospel of Matthew supports the confession of faith by the early Church that Jesus was not only a son of man, Joseph but also the ‘Son of God’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The Gospel of Matthew quotes the prophecy of Jesus in the Old Testament and confirms that it has been fulfilled.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v. 23a, 이사야 7:14 인용)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God with us (v.23a KJV).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 입니다. (이사야 7:14b)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Isaiah 7:14b)

그런데 이사야서는 마태복음의 ‘동정녀’ pathenos 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 합니다. 바로 ‘젊은 여인’을 뜻하는 처녀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본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즉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임신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신발을 신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점점 더 난처해 집니다. 차라리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분명해 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약혼녀의 임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인한 잉태소식을 어떻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천사가 먼저 다가 왔지요.

However, ‘almah,’ the word used in the book of Isaiah is slightly different from ‘pathenos’, which is used to express ‘virgin’ in the Gospel of Matthew. It means ‘a young woman’ of child bearing. As the Bible was translated from Hebrew into Greek, the emphasis was put on that the pregnancy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not by a man. If we were in Joseph’s shoes, it would be hard for us to accept today’s verses. If she was impregnated by another human being, it was rather easier and clearer to deal with. But he was told that the baby was conceived by God. Today’s verses don’t mention in detail how and from whom he heard the news. But the Bible states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as a clear fact. By now, God is the only One who can untangle Joseph’s heart. Just as to Mary, an angel came to Joseph.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v. 20b)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v. 20b)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수태고지’ annunciation 는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토록 가장 먼저 두려움을 떨궈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 당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쉽게 닫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려움에 매몰 당하면, 곧 이어 걱정과 의심의 쓰나미가 몰아쳐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식/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네 집으로 데려와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 혹은 ‘요수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다/ 여호와와 도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가 타락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The annunciation about the birth of the Lord starts with the same message, “Do not be afraid.” Why is it so important to shake off fear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because our spiritual eyes and ears are easily shut down as soon as we become a slave of fear; it is because we would be swept by a tsunami of anxiety and doubt as we are buried by small fear. ‘Even though it doesn’t make any sense now, believe in God first. Don’t be afraid and just take Mary in as your wife. The baby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Name him Jesus.’ Jesus is a Greek name translated from Joshua in Hebrew. It means ‘Jehovah is the Savior; Jehovah is help.’ Just as Joshua led Israelites from the wilderness to Canaan, it symbolizes that ‘Jesus’ would save his people from the corrupted world and lead them to the heavenly gate.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몇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요셉은 관대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 내기보다 조용히 품어 줍니다.**

I found a few spiritual lessons from the story of Joseph in today's scripture.

First, Joseph is a big-hearted man. He quietly covers one's faults rather than exposing them.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v.19)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v. 19)

아직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처럼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약혼녀의 혼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구약성서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두 사람 모두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경고 합니다. (신명기 22:23-24)

Although Joseph hasn't taken her in to his home yet, Joseph is Mary's husband as the Bible records. He thus has every right to question about Mary's extramarital conception. The Old Testament warns that "if a man happens to meet in a town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and he sleeps with her, you shall take both of them to the gate of that town and stone them to death" (Deuteronomy 22:23-24).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한 후에 율법대로 약혼녀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치를 떠는 그런 의로움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로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의로움, 관대함입니다. 동네방네 떠벌리는 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더 깊이 배려하는 헤아림입니다. 이 조용한 파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임신'이라는 천사의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당시 관습대로 요셉은 두 명의 증인을 세워 조용히 이혼증서를 써 주었을 것입니다. 이혼증서를 주고 마리아가 정을 통한 남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동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 했을까요? 숨겨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을 지도 모릅니다.

One interesting fact is that Joseph is described as a righteous man and then it is written he wanted to quietly break the marriage instead of executing her by the law. The righteousness mentioned in the Gospel of Matthew would not mean to look at one's fault and quiver in rage. It rather means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love one another as I have washed your feet." It means forgiving in the love of Jesus Christ. It's not about exposing her to public disgrace but understanding her more deeply and being considerate to her. He hasn't heard from the angel yet when he wanted to quietly break the marriage. According to the custom at that time, he would have found two witnesses to quietly issu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so that she can be married to the one who impregnated her. It would have been an act of giving up his right and completely giving in to consider her situation. What if you and I were in Joseph's situation, what would we have done? Perhaps we might have said that covering her fault may not be the right thing to do.

덮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찢값은 반드시 치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덮어 줌, 덮어 짐을 경험 했습니까?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창피 찬란해서 얼굴 드러내고 큰 길에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품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참아 주심과 덮어 주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믿음과 불신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밀쳐 내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결코 절대적인 옳음, 바름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의롭게 보일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저울 위에 서면 우리 모두 절대 함량 미달입니다.

We may have insisted that covering her fault doesn't solve everything and that she has to pay the price. However, how often have we experienced situations where someone else embraced our faults or we have covered someone else's faults? What would have happened if every shortcoming and fault of ours was exposed? If so, we may not be able to face anyone. Teachers in school and parents at home have embraced our mistakes and wrongdoings. Of course, God's endurance towards our shortcomings is immeasurable. We have repeated the same mistakes, become indifferent to His love, and been unfaithful, but God never gave up His love for us. Our righteousness can never become an absolute right. According to circumstances and whom we deal with, we may relatively look more righteous, but on the scale of God's righteousness, we always fall short.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 입니다. 죄 없는 유월절 어린양 예수의 보혈로 만든 은총의 옷, 그 은혜의 무게 때문이지요. 요셉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관대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It is not the righteousness that we have come this far but the clothes that we wear. It is due to the clothes made by the grace of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the weight of that grace. Joseph was a man of generosity, who considered others more than himself even at the critical moment of life and death.

**둘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Second, Joseph is a man of obedience. As soon as he hears the word, he takes action.**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vv.24-25a)

Joseph awoke from his dream and took Mary as his wife, as the angel of the Lord had told him. But he did not sleep with his wife until he had the first son. (vv. 24-25a)

계산기 두드리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니다. 머리 속에 정리가 다 된 후에, 논리적으로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곧장, 곧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무장된 우리는 어떨습니까? 거친 말씀을 이성의 채로 한 두 번은 잘 걸러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경험의

줄자를 사용해서 가능한지, 불가능인지 분석해봐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꿈 속의 말씀인데 커피 한잔 뒤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임신한 처녀’ 데려와 아내로 맞는 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덜컥 저질러 버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주나요? 동네사람 중에 그 누가 ‘성령으로 인한 임신’을 믿어 줄까요? 수없이 많은 질문이 찰나의 시간을 스쳐 지나갑니다.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니다. 복잡한 방정식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저것 뒤바뀌는 변수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때문에 순종이라 쓰고 믿음이라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요셉의 관대함과 순종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He did not weigh the benefits and losses by careful calculation. He did not wait until he could logically persuade himself after organizing his thoughts. After hearing the voice of the angel, he obeyed immediately. How about us armed with reason and experience? Don't we have to filter it out at least once or twice until we get satisfied? Don't we get feel relieved only after checking the possibilities using the tape measure of our experience? Especially for what we heard in dreams, don't we need to figure it out with clear minds after a cup of coffee? Shouldn't he have been more prudent on accepting a pregnant unmarried woman as a wife? When he made the bold decision, who would take the responsibility afterwards? Who among the neighbors would believe in the "Conception by the Holy spirit"? Numerous questions must have gone through his mind at the moment. Obedience is to accept "in spite of" and "even if not". Obedience is putting down complex calculations and holding on to the hands of Almighty God. It is relying on God who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never changing. Therefore, we can equate obedience with faith. The story of birth of Jesus reminds us of Joseph's generosity and obedience.

**세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third spiritual lesson is that there is a time when God the holy spirit works forcefully.**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v. 18)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v.20)

The fact that Maria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was revealed. (v. 18).

The baby in the womb was formed by the Holy Spirit (v20)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긴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지요.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에 신앙의 맷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했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더욱 더 짙게 드리워질수록 찬란한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 long dark period between the period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t was like a long dark tunnel in which God's presence could not be felt. Sometimes, such times of darkness comes to us. It was unbearable time of loneliness, when our faith was far weaker than now. However, I have one conviction now. The darker the time was, the closer it was to the bright dawn.

철벽같은 여리고 성 앞에 서면,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지만 말씀만 붙잡고 전진할 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 지려면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두 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두 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영적 근육이 키워져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본문은 그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임을 말해 줍니다.

When you stand in front of fortified walls of Jericho, you will have confidence that the Holy Spirit will work. Although I cannot overcome a hurdle with my own strength and will, Holy Spirit is the one who makes it possible when I hold onto the words and move forward. It is very important to experience "small victories" in our lives of faith. And these small victories start with "small obedience". To become sensitive to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e must learn to obey in our daily lives. It is not a feeling but two legs springing into action when you hear the words, not an emotion but two hands that can act in accordance with the words. We need to remember that obedience is not through our head, but it has to be practiced with our body. To be obedient, spiritual muscles need to be built. There are not many records about Joseph, but the bible text tells us that he was definitely a spiritual person.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비전을 잃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결단을,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힘을 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 몸에 힘을 빼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퍼즐, 감당할 수 없는 난관 앞에서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상식과 이성의 울타리를 넉넉히 훌쩍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살피 주시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Dear friends,

What makes us tired and drained? What made you lose the meaning of life and the wonderful vision God has given you? What is the stumbling block to your precious decisions and obedience? We need spiritual eyes to look at problems properly. We also need spiritual

ears to hear the words properly. If you are facing troubles, it is not the time trying to exert ourselves. Rather, without relying on our strength, we must wait quietly for the Holy Spirit to work. Are you facing a puzzle that you cannot solve or a difficulty that you cannot deal with? Now is the time for the Holy Spirit to work. The baby in the womb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Let's have an expectation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common sense and reason. The name of our Lord "Immanuel" is still an effective/valid name. The Holy Spirit is God who is always with us and taking care of us with the flaming eyes.

R. A.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 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성령충만 하지 못할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충만 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까? 주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Reverend R.A. Torey prayed every morning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God, help me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if I am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can be easily shaken today. Help me not speak rashly when I feel that I am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when I am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 is easy to say wrong things and hurt others. Help me not make important decisions in life, when I am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or, if I am no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may make wrong decisions”

What a humble prayer? What an earnest prayer asking fo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 bless you to have a week of triumph with the Holy Spirit in the Lord.